

## 가치 및 원칙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 재 욱

김 혜 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관련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를 찬성하는 쪽으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저항과 마주해야 하는 직접 설득의 시도에 비해, 주변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조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찬성하는 내용의 기술문’을 읽거나 혹은 ‘능력주의 원칙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술문’을 읽고, 조작 전, 후로 적극적 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서 적극적 조치 제도를 직접 지지하는 기술문을 본 참여자들보다 능력주의 원칙을 비판하는 기술문을 본 참여자들에서 적극적 조치정책관련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능력주의 비판의 설득효과는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호감 감소에 의해 매개되었다. 연구 2에서는 내집단 규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호감을 조작하여 정책태도 설득효과를 반복 검토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조건에 따라 ‘능력주의 원칙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술문’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평가정보가 긍정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접하였다. 분석 결과, 능력주의 비판 기술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을 때 중립적이었을 때보다 참여자들의 적극적 조치정책 관련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도를 직접 공략하기보다 반대 태도의 기반이 되는 가치 및 원칙을 공략하는 간접적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조치 제도에 대한 태도를 찬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을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가치, 태도변화, 설득, 적극적 조치, 능력주의

\* 이 논문의 일부는 정재욱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E-mail: hsk@ajou.ac.kr

우리는 살면서 나와 다른 태도나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각자 주장하는 의견이나 태도가 상반될 경우, 사람들은 서로의 태도를 바꾸려 시도한다. 그러나 대개 설득의 시도가 만족스러운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까운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정책이나 공공부문의 결정을 내리는 장면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수년간 공공정책 부분에서의 설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설득의 수용자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직접 공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한다(Knowles & Linn, 2004).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의 태도에 대한 공격을 지각하면 대부분 그것에 저항하게 되며 (Knowles & Linn, 2004), 태도저항에 성공하게 되면 그 경험은 기존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설득을 더 어렵게 만든다(McGuire, 1964). 그렇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설득은 쉬운 일이 아니다.

#### 태도와 가치

사람들의 태도, 행동이나 의사 표현은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그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일까? 많은 연구자들은 ‘가치’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힘”이라고 정의하였다(Allport, 1961; Schwartz & Blisky, 1987). 가치는 태도와 행동 모두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변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시도는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설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태도와 달리 가치는 거의 도전받을 일이 없고, 문화권 내에서 당연시 옳은 것이라 여겨지는 문화적 공리(cultural truism)처럼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가치에 대한 지지는 쉽게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Maio & Olson, 1998). 예를 들어 문화적 공리 중의 하나인 “잠은 하루에 8시간 자는 게 좋다”라는 공리는 비판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방어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오히려 비판을 당하면 쉽게 취약해지는 원리와 같다(McGuire & Papageorgis, 1961).

#### 평등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미국은 오랜 인종갈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소수 혹은 비주류 집단에 행해진 과거 차별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평등실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종이나 여성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AA)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소수 혹은 비주류 집단이 겪은 불평등이나 피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적조치는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소수인종 출신 집단 구성원에 대한 모집을 증가시키는 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미국 백인들이 흑인이나 인종소수자에 대한 평등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다. 즉, 많은 백인들이 적극적 조치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을 표시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공정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평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하면서 불편함이나 불안을 나타낸다. 이것은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태도가 부정적이면서도 호의적인 양가성(ambivalence)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Katz & Hass, 1988).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불편한 감정이 존재한다. 대학입시의 수학능력평가란 그 동안의 학업수행을 평가받는 객관적 시험인데,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조치는 인종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주로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6차 개정(2005년 12월)시, 성차별 해소와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는 적극적조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등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크게 보이지 않지만(윤인진, 김상학, 2003),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남성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조치에 대한 반대태도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18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7개를 대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류도암, 2013).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들이 적극적 조치 제도가 갖는 목표비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고, 제도가 계속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문미경 등, 2013). 이런 결과를 미루어볼 때, 일반 사기업 회사원이나 대학생들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조치 제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 능력주의와 분배정의

그렇다면 적극적 조치와 같은 평등실현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 보통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대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 이 조치가 능력(merit)에 의한 보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주의 내지는 성과주의 원칙으로, 개인의 투자에 근거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배 정의 원칙이다(Deutsch, 1975). 사회과학에서 공정함을 최대화 시킬 분배 정의 원칙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 형평(equity), 평등(equality), 그리고 필요(need). 이 중 형평에 의한 분배 정의는 남들과 비교해 개인의 투입한 투자(input)에 비례하게 결과(output)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리이다(Adams, 1965; Deutsch, 1975; Lerner, 1977). 형평 분배 정의원칙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출에 기여하는 개인의 인풋(노동력, 시간,

노력 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다면, 보너스 같은 아웃풋 역시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주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평등 원칙은 모두에게 동등한 보너스를, 그리고 필요 원칙은 가장 보너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 직장이나 학업에 있어서, 사람들은 평등이나 필요보다 형평에 의한 분배 정의를 선호한다(Hook & Cook, 1979). 이런 프로테스탄트적 믿음은 아마도 이 원칙이 동기나 생산성을 최대화 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Deutsch, 1975). 이와 같은 형평에 의한 분배 정의 원칙은 능력주의 원칙(meritocracy)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적극적 조치 같은 제도, 특히 같은 점수 조건에서 특정 집단원을 선발하는 동등 처우(equal treatment)의 형태보다 다른 집단 후보보다 점수가 낮아도 특정 집단원을 선발하는 우선 처우(preferential treatment) 형태에 대해서는 능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반발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Son Hing과 Bobocel 그리고 Zanna(2002)는 능력주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 중 현재 직장내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현 직장내 차별을 심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적극적 조치 제도에 대해 크게 반대한다는 것을 보였다.

#### 본 연구

McGuire는 “Socratic effects”연구에서 어떤 가치를 특출 혹은 현저(salient)하게 만들면, 사람들의 언급하지 않은 태도나 신념까지 그에 맞게 변하게 됨을 제안하였다(McGuire, 1960a, 1960b). 보다 최근 들어, 태도나 행동보다 그 저변에 개입된 가치를 간접적으로 공략(공격)하는 설득방법이 직접적인 설득보다 태도변화에 더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가 있다(Blankenship, Wegener, & Murray, 2012). Blankenship 등(2012)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정책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해당 정책에 개입된 가치인 ‘평등’을 간접

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태도가 더 크게 변화(즉, 반대 태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이 설득효과에 대한 심리적 기제로서 ‘가치에 대한 호감(favorability)과 자신감(confidence)’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매개변인으로 제안하였다. 즉, 간접 공격으로 인해서 ‘평등’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덜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Blankenship 등(2012)은 가치를 공략하는 것이 설득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국인 실험참여자들에 ‘평등’이란 가치를 비판함으로써 평등정책에 대한 찬성태도를 약화시키는 결과인 것으로, 반복 검증을 위해 연구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데 그 실용적 한계점이 있다. 미국 사회의 대학생들이 이미 대부분이 적극적조치에 대해 찬성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치공략의 설득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조치에 대해 아직도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찬성태도를 약화시키는 설득은 그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적극적조치에 대한 찬성으로 태도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사회적·실용적으로 합의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Blankenship 등(2012)의 설득효과 즉, 직접적인 태도공략보다 태도 저변의 가치를 공략하는 것이 설득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적극적 조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찬성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연구 1).

연구2에서는 내집단 규범 정보를 이용하여 내집단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적극적 조치에 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집단규범이론(Sherif & Sherif, 1953)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체계는 대부분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집단 여론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데, 특히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서 만들어진 분위

기에 쉽게 더 영향 받는다. 나은영(1995)의 연구에서 단순한 여론 정보만으로도 여론 정보가 지지하는 쪽으로 태도변화가 발생하며, 특히 대학생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는 일반인 집단보다 대학생 내집단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더 크게 변하였다.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차별적인 내집단 규범보다 평등적 규범 정보에 의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나 여론이 양성평등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일 때, 사람들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 규범에 의해 개인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일부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정체성 이론의 설명과도 일치한다(Tajfel & Turner, 1986). 그러므로 내집단 규범이 개인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내집단 규범에 의해 집단구성원이 가진 가치/원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 역시 변할 수 있다.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내집단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그 구성원도 역시 능력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로 인해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내집단 규범이 해당 원칙에 대해 크게 비판적이지 않다면,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 역시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집단 규범 정보를 이용하여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적극적 조치에 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하였다(연구 2).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는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음을 밝힌다.

#### 연구목적과 가설

본 연구1은 Blankenship 등(2012)의 연구를 한

국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반복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 반대태도의 기반이 되는 능력주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태도 지지의 직접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치 비판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 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2에서는 Blankenship 등(2012)의 연구를 확장해서,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내집단의 규범 정보(즉, 능력주의 비판 기술문에 대해 긍정적 혹은 중립적 규범)에 따라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내집단의 비판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립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우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더 증가시키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개의 사전 연구를 사용하여 처치로 사용할 기술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고(사전연구1), 또한 실제로 능력주의 가치가 적극적조치에 대한 반대태도와 관련되어 있는지 역시 검토하였다(사전연구2).

### 사전연구 1

본 연구에서 처치로 사용할 기술문 선정을 위해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사전연구는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의 기술문과 여성 적극적조치 정책을 주장하는 기술문 간의 설득력 차이를 통제하고자 실시하였다. 먼저 능력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기술문을 만들기 위해 강정인(1991)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문제점 및 그 한계’와 오찬오(2016)의 ‘능력주의를 신뢰할 수록 가난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를 요약 정리하여 9문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근대의 평등과 능력주의의 한계’라는 제목을 달았다(본문

p. 10). 두 번째로, 여성 관련 적극적조치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수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A)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II) 내용을 참고해 8문장을 만들었다. 이 기술문에는 ‘불평등의 심화: 여성고용할당제의 정당성’이란 제목을 붙였다(본문 p. 10). 그리고 토론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조사라는 명목으로 심리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총 40명)에게 각 기술문을 평가하게 하였다. ‘능력주의 비판’ 내용의 기술문을 평가한 대학생의 수는 20명이었고, ‘여성고용할당제 주장’의 기술문을 평가한 대학생도 20명이었다. 대학생들은 해당 지문을 읽고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리고 지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로 응답 평가하였다. 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문간 비교를 위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기술문 종류에 따른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세 종류의 응답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기술문 종류에 따라 설득력( $F(1, 38)=.675, p=.417$ ), 논리적( $F(1,38)=.404, p=.529$ ), 지문에 동의하는지( $F(1,38)=.806, p=.375$ )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기술문을 본 실험연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기술문 종류에 따른 지문 평가 평균 (사전연구1)

	기술문 종류	
	능력주의 비판 (SD)	AA 직접 주장 (SD)
지문 설득력	3.75 (1.01)	3.45 (1.23)
지문 논리적	3.75 (1.16)	3.50 (1.32)
지문에 동의	3.85 (1.47)	4.20 (.95)

주. 평가 척도는 6점(1-6점)척도임. 점수가 높을수록 지문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동의하는 것.

## 사전연구 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반대 태도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사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연구 2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적극적 조치 반대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우선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조치 반대 태도 간의 상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능력주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능력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정진화(2016)의 ‘존 롤즈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분배정의론에 기초한 능력주의 믿음을 묻는 4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능력주의 1:  $\alpha=.581$ ). 이 4개 문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리한 조건的人们에게 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역문항)”, “출신집단이나 재능에서 불리하더라도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집단 사람들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역문항)”, 그리고 “누구나 남들보다 큰 능력과 노력으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6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보다 형평에 의한 분배정의(능력주의)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Jost(2003)의 능력주의 신념 2문항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능력주의 2;  $\alpha=.861$ ).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면, 성공의 기회가 있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다”의 두 개 문항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6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 능력주의 믿음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주의 믿음이 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Lalonde(2000)가 개발하고 Foster(2006)가 수정, 요약한 4문항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였다(능력주의3:  $\alpha=.686$ ).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소수(비주류) 집단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많은 사회적 장벽들이 소수집단 출신 사람들이 앞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역문항),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소수(비주류)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의 4 문항이며 응답은 모두 6점 척도로 이루어졌다(1=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

또한 한국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차별지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6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을 하나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정책(이하 AA로 표시함)에 대한 태도 측정에는, Blankenship 등(2012)이 종속측정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5개의 의미미분 문항들(해롭다~유익하다, 어리석다~현명하다, 나쁘다~좋다, 탐탁지 않다~호의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다)과 직접적으로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한 총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alpha=.965$ ). 이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6점 척도로 수집하였다.

구글 온라인 설문으로 응답을 수집하였고, 총 44명(남23, 여21)의 응답결과가 수집되었다. 능력주의 믿음과 AA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나 있듯이 Lalonde(2000)와 Jost(2003)의 능력주의 믿음(각각 능력주의 2, 능력주의 3)을 변안하여 사용한 두 개 척도 모두 여성 AA에 대한 반대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분배정의에 근거하여 만든 능력주의 믿음 문항(능력주의 1)은 여성에 대한 AA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r=-.542, p<.001$ ). 다시 말해, 응답자들의 분배정의에 근거한 능력주의 믿음이 강할수록, 여성에 대한 AA 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능력주의 믿음과 AA 태도 사이 부적연관성을 확인한 것으로, 실험조작을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AA 반대 태도를 약화시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다만, 많은 선행 연

표 2. 사전연구2 주요변인의 상관표

	능력주의1	능력주의2	능력주의3	여성차별지각	AA정책태도
능력주의1	1				
능력주의2	.354*	1			
능력주의3	.485**	.440***	1		
여성차별지각	-.470**	-.029	-.267†	1	
AA정책태도	-.542***	.148	-.040	.645***	1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주. 능력주의 1(분배정의에 기초한 능력주의 믿음), 능력주의 2(Lalonde의 능력주의 척도), 능력주의 3(Jost의 능력주의 척도).

구들에서 능력주의 믿음과 AA 태도간 부적 관계를 보여 왔지만(Davey 등, 1998; Son Hing 등, 2002, 2012), 본 연구자가 사용한 능력주의 척도 세 가지 중 한 개 척도에서만 이 관계를 직접 확인하였다. 즉, 선행연구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사전 연구2)에서는 기존의 능력주의 믿음 척도(Lalonde(2000)와 Jost(2003)의 척도)와 여성 적극적조치 태도간의 부적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분배정의론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만든 능력주의 믿음에 대한 문항들이 여성 적극적조치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아마도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한,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능력주의 척도는 주로 노력(effort)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중시한 반면,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노력보다 역량(capability) 혹은 성과(outcome)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자가 아는 한 한국형으로 개발된 능력주의 믿음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한국형 능력주의 척도 개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 1

연구1의 목적은 먼저 Blankenship 등의 연구(2012) 결과가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AA 태도에 관해서 반복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설득방법: 직접주장/가치·원칙비판) x 2(정책태도 평가시점: 사전/사후) 혼합설계를 사용하였는데, 평가시점이 참여자내 변인인 혼합 설계이다. 또한 가치/원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이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참여자들의 AA 정책에 대한 태도는 이 정책을 직접 지지한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읽었을 때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비판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이 AA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는 가치비판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을 감소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방 법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실험참여자들의 사전 정책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성관련 적극적 조치 정책이 포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응답하는 부분이었다. 두

번째는 실험처치인 조작 기술문을 읽고 난 후 매개변인과 종속측정인 사후 정책 태도에 응답하는 부분이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조작기술문이 포함된 질문지는 언어능력검사라는 명목으로 지문과 관련된 문제들(예를 들어, 문항의 난이도 평가 등)과 함께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실험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요구특성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 실험참여자

00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93명(평균연령 = 23.23세,  $SD=3.69$ )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불성실응답과 조작점검 문항 탈락으로 4명을 분석에서 제외(남1, 여3, 각 조건에서 2명씩)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득방법에 따른 2개 조건에 무선 할당 되었다. 실험참여자는 남자 41명, 여자 48명으로, 직접설득에 해당하는 ‘여성할당제의 정당성’ 기술문을 읽는 조건에 남자 20, 여자 22명이 할당되었고, 원격비판에 해당하는 ‘능력주의의 한계’ 기술문을 읽는 조건에 남자 21, 여자 26명이 할당되었다. 실험참여자들 모두는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편의점 기프트콘 2천원을 수령했다.

#### 절차

실험참가자는 원하는 시간대로 신청한 1명에서 4명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칸막이가 설치된 개별 책상이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 정책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정책’과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질문한 뒤, 본 연구의 주 측정인 ‘여성 취업 우대정책’에 대해 그 찬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뒤 다른 8개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더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

에 대한 응답은 Blankenship 등(2012)이 사전정책 태도 측정에 사용한 의미미분 2개 문항을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각 응답은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1=해롭다~6=유익하다; 1=나쁘다~6=좋다). 참여자들이 사전 정책 태도 응답인 질문지에 모두 응답하고 난 뒤, 연구자가 ‘언어추리능력검사 문항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무선 배정된 조건에 따라 참여자들은 ‘능력주의의 한계’(즉, 가치비판 조건) 기술문이나 ‘여성고용할당제의 정당성’(즉, 직접 주장 조건) 기술문을 읽고 지문과 관련된 문항들과 주요 변인들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이 실제 언어능력 검사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지문과 그에 따른 문제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문을 읽고 위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본문 단어를 다르게 바꾸는 문제(paraphrasing)와 문맥 사이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는 사지선다 응답의 세 가지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중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작점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언어능력검사를 위해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앞 세 문항의 난이도 평가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응답하고, 매개변인으로 제안한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과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이 중 지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는 종속 변인인 사후 정책 태도 측정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적극적 조치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뒤, 사후 정책태도를 측정하였다. 사후 정책태도 측정 시, 사전 측정에 사용한 ‘여성 취업 우대정책’ 대신 ‘적극적 조치’ 정책이라는 말로 바꾸어 정책태도 반복측정으로 인한 실험참여자의 의심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조치 정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실험참여자를 위해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참여 보상 기프트콘을 받을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적고 디브리핑 설



명 후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질문지에 실린 각각의 처치 지문은 다음과 같다.

**직접 주장 조건**

<불평등의 심화: 여성고용할당제의 정당성>  
왜 우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논해야 하는가? 첫째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이유이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지수(GGI)는 조사대상 145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있는 고학력 여성의 인구는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손실이다. 여성인력의 활성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두 번째로 다원화 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성 관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여성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양성과 차별해소라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요 보직에 준비된 여성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비판 조건**

<근대의 평등과 능력주의의 한계> 실패는 무능한 네 탓?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실패’와 ‘가난’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 능력주의를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경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은 경쟁의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아파트값 1~3위인 강남, 서초, 송파구의 서울대 진학을 역시 1~3위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최종 결과는 수험생간의 객관적인 역량 차이이겠지만, 그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실패한 개인에만 그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균등한 기회만을 보장해주는 능력주의의 평등이 형식뿐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을 위해 열악한 조건의 사람들

에게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

**측정 도구**

**조작 점검**

참가자가 기술문 내용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치 지문 다음의 첫 번째 질문 “위 글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지선다 응답을 조작점검으로 삼았다. 두 조건 모두에서 주제문을 묻는 문항에 대한 대답은 1번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직접 주장 조건에서는 (1=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을, 원칙 비판 조건에서는 (1=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실패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을 답해야 처치 기술문의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두 조건 모두 조작점검 탈락에 해당하는 2번, 3번 그리고 4번 보기는 동일했다(2=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3=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4=인구감소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매개변인**

참여자들은 뒤이어 매개변인으로 제안한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과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질문 문항은 Blankenship 등(2012)의 연구에서 매개변인 측정에 사용한 문항을 번역 후 능력주의에 대한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

“능력주의라는 가치/원칙은” 이라는 질문으로 의미미분 5개 문항(1=해롭다~6=유익하다, 1=어리석다~6=현명하다, 1=나쁘다~6=좋다, 1=비판적이다~6=호의적이다, 1=탐탁지 않다, 6=바람직하다)에 대한 6점 척도 응답으로 이루어

졌다.

###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

“능력주의라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옳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2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응답하도록 하였다.

### 종속 측정

#### 사전 정책 태도

처치 지문이 포함된 질문지를 접하기 전 먼저 응답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 질문지에서 ‘여성 취업우대’ 정책에 대한 응답만을 사전 정책 태도로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Blankenship 등(2012)이 사전정책태도 측정에 사용한 의미미분 2개 문항을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각 응답은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1=해롭다~6=유익하다; 1=나쁘다~6=좋다).

#### 사후 정책 태도

매개변인에 대한 응답까지 이루어진 후, 질문지 마지막 장에 ‘적극적 조치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조치의 기원, 한국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시행된 역사, 그리고 제도 자체의 목적과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정책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사후 정책태도에 해당하는 “여성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조치 제도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Blankenship 등(2012)의 연구에서 종속변인 측정에 사용한 의미미분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의미미분 5개 문항은(1=해롭다~6=유익하다, 1=어리석다~6=현명하다, 1=나쁘다~6=좋다, 1=비판적이다~6=호의적이다, 1=탐탁지 않다~6=바람직하다)이었다.

## 결 과

### 조작 점검

지문 주제 질문에 대한 오답과 질문지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응답 총 4명을 분석에서 제외(남1, 여3)하여 총 8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건에 따라 직접주장 조건에서 2명이 탈락하고(44명 중 42명, 95%), 원칙비판 조건에서 2명 탈락으로 49명 중 47명(96%)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사전 정책 태도

첫 번째로 응답한 정책태도 질문 중 ‘여성 취업우대’ 정책에 대한 2개 응답을 평균하여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alpha=.849$ ). ‘사전 정책태도’에 대한 응답을 종속측정으로 2(참여자성별: 남, 여) x 2(설득방법: 직접주장, 원칙비판)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성별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F(3,85)=17.24, p<.001$ ). 사전정책 태도에 있어 남자들( $M=3.26, SD=0.17$ )이 여자들( $M=4.23, SD=0.16$ )에 비해 부정적이었다(표 3). 설득방법 조건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실험 조작에 앞서 측정된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조건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여성이 수혜자의 입장인 정책에 대해 남성들의 반발 또는 여성들의 우호적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사후 정책 태도

두 번째 질문지에서 응답한 ‘여성 적극적조치 제도’에 대한 의미미분 평가 5개와 지문에 동의하는 정도 응답을 평균하여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alpha=.889$ ). 이렇게 만든 사후 정책태도에 대해 2(참여자성별:남, 여) x 2(설득방법:직접주장, 원칙비판)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성별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F(3,85)=9.38, p<.01$ ). 사후 정책태도에 있어 남자들( $M=3.95, SD:.14$ )이 여자들( $M:4.52, SD:.13$ )에 비해 부정적

이었고, 설득방법에 따른 주효과나 상호작용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자 Blankenship 등(2012)은 사후 정책 태도에서 사전 정책태도를 뺀 태도변화 점수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도 태도변화 점수를 계산하여 2(참여자성별:남, 여) x 2(설득방법:직접주장, 원칙비판)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참여자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고, 조건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3,85)=3.94, p<.10$ ). 이 것은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큰 태도변화를 나타내었음을 뜻한다.

실험조작 이전과 이후 측정 정책 태도 응답에 있어 모두 여성참여자에서 우호적인 응답자성별의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 태도에 대하여 사전정책태도 응답을 통제한 공변량(ANC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정책태도를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사후 정책태도를 종속측정으로 한 2(참여자성별: 남, 여) x 2(설득방법: 직접주장, 원칙비판) 이원 공변량(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득방법의 주효과가 유의미성에 근접하였다( $F(3,85)=2.95, p=.083$ ).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표 3에 나타나 있는대로, 할당제를 직접 주장하는 조건(조정된  $M=4.12, SD=0.11$ )에서보다 능력주의원칙을 비판하는 조건(조정된  $M=4.39, SD=.11$ )에서 사전태도에 비해 사후정책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조치 정책 태도를 설득하는데 있어 태도를 직접 겨냥한 주장보다, 저변의 가치 원칙을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설득방법의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만을 보여 다소 약한 효과였지만, 본 연구자가 가정한 가설 1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매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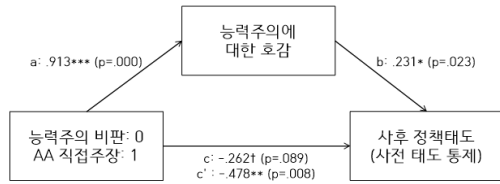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보여 주었듯이,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이 본 연구1에서 확인한 간접적 설득 효과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을 측정한 5개 응답을 평균( $\alpha=.858$ )하고,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 2개 응답을 평균( $\alpha=.913$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매개분석에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 및 조절 모형 분석을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회귀분석 PROCESS macro를 사용해 진행하였다.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미성 검증에는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후, 이 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5,000개로 하였고,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였다.

우선,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에 대해 2(참여자성별: 남, 여) x 2(설득방법: 직접주장, 원칙비판)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득방법의 주효

표 3. 설득방법과 응답자성별에 따른 사전, 사후 적극적 조치 정책태도와 태도변화 평균(SD)

	조건					
	능력주의 비판			AA 직접주장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사전 AA태도	3.30(.91)	4.18(1.05)	3.74(.17)	3.21(1.36)	4.27(1.02)	3.74(.16)
사후 AA태도	4.14(.91)	4.60(.87)	4.37(.14)	3.76(1.13)	4.45(.72)	4.10(.13)
태도변화	0.84(.82)	0.42(.99)	0.63(.14)	0.54(1.16)	0.18(.70)	0.36(.14)

주. 태도변화(사후 AA태도 - 사전 AA태도)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설득방법이 사후정책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능력주의 호감의 매개효과

과가 유의미하였다( $F(3,85)=32.012, p < .001$ ). 이에 따라 PROCESS macro for SPSS(model:4)를 통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정책태도를 공변량으로 투입하고, 설득방법이 능력주의 호감을 매개로 사후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사후정책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간접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95% 신뢰구간[.05, .44]). 그림 1에 매개 분석 과정이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으며, 능력주의 비판이 사후 정책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일부분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 감소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95% 신뢰구간[-.03, .26]). 본 연구의 결과는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호감의 감소가 능력주의 비판의 설득효과를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매개 검증에 사용된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과 자신감 그리고 정책태도를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표 4). 사전 정책태도를 통제하지 않은 사후 정책태도나 태도변화 점수는 능력주의 호감이나 자신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이것은, Blanckenship 등(2012)이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것처럼 단순한 태도변화 점수로는 매개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논 의

본 연구1에서는 대학생들에 있어 여성관련 적극적조치에 대한 태도가 이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설득문을 접하는 경우보다 태도에 기저되어 있는 능력주의 원칙을 비판하는 글을 접하는 경우에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전측정 정책태도에서 응답자 성별의 효과가 나타나, 사전정책태도를 통제한 후 사후 정책태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설득방법의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띄는 것에 그쳤지만, 직접주장 기술문 보다 능력주의 원칙비판 기술문이 사후 정책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1에서는 또한 능력주의 원칙 비판의 설득효과의 매개과정을 검토하였다. 직접주장보다 원칙비판으로 사후 정책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표 4. 연구1 주요 변인 상관표

	사전AA태도	사후AA태도	태도변화	능력주의 호감	능력주의 자신감
사전AA태도	1				
사후AA태도	.630***	1			
태도변화	-.637***	.198†	1		
능력주의 호감	-.093	.026	.143	1	
능력주의 자신감	-.172	-.044	.174	.599***	1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한데는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의 감소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매개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능력주의 가치 비판이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간접적 설득 효과가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호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기서의 매개 효과는 인지적 이라기보다는 가치에 대한 감정에 근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연구1에서는 그러나 설득방법의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만을 보여 그다지 강한 효과를 자아 내지 못했는데, 이는 이미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여성들에서 설득의 기대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한국 대학생들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대 태도가 다소 강하여 설득 시도 효과가 실제로 그다지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선행연구의 연구자는 종속 측정에 9점 척도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상대적인 변화폭이 작기 때문에 조작의 효과 역시 작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2에서는 정책태도 측정을 선행 연구의 9점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1의 결과들에 근거하여, 연구2에서는 연구1과는 다른 방법으로 능력주의 가치나 원칙에 대한 호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내집단의 비판적 혹은 중립적 규범정보를 제공하여 설득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 2

연구2의 목적은 적극적 조치 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가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자신감 혹은 호감 변화를 매개로 한다는 것을 연구1과는 다

른 방법-즉, 능력주의에 대한 내집단 규범 정보를 사용하여 재검토 하는 것이다. 대학생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집단을 대학생 집단으로 정하였다. 나은영(1995)의 연구에서 대학생 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의 규범정보보다 내집단인 대학생 집단의 규범정보에 의해 더 큰 태도변화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들은 내집단 대학생들의 규범정보에 의해 더 큰 영향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내집단 규범이 능력주의 비판 글에 대해 중립적일 때에 비해 긍정적일 때,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 역시 감소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한 태도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반대로 내집단 규범이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도 않을 경우(즉, 중립적일 때),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 역시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에 따라 정책 태도 변화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연구 설계는 2(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 평가 정보: 긍정/중립) x 2(정책태도 평가 시점: 사전/사후)로 내집단 평가 정보가 참여자간 변인이고 태도평가 시점이 참여자내 변인인 혼합 설계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참여자들의 적극적조치에 대한 태도는 능력주의 비판 글에 대한 내집단 평가가 중립적일 때보다 긍정적일 때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가설 2.** 적극적 조치제도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 변화(즉, 감소)를 통해 매개될 것이다.

## 방 법

연구1과 마찬가지로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실험참여자들의 사전 정책 태도를 측정하는 부분이었다. 두 번

제는 실험처치인 능력주의 비판 글과 그에 대한 내집단평가 정보를 읽고 난 후 매개변인과 종속 측정인 사후 정책 태도에 응답하는 부분이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조작변인이 포함된 질문지는 앞서 실시한 다양한 정책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제공하여, 사후 정책 태도 응답에 개입될 수 있는 요구특성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 실험참여자

00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83명을 2개 조건에 무선 할당 하였다. 이중 조작점검 질문에서 탈락한 2명(여2)을 제외하고 81명의 응답만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참여자는 남자 40명, 여자41명으로, 내집단 평가 긍정 조건에 남자22, 여자19명이 할당되었고, 내집단 평가 중간 조건에 남자18, 여자22명이 할당되었다. 실험참여자들 모두는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편의점 기프트콘 2천원 혹은 현금 2천원 중 선택을 통해 수령했다.

#### 절차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참여자는 원하는 시간대로 신청한 1명에서 3명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칸막이로 구분된 개별 책상이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 정책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2에서 연구1과 달라진 점은 정책태도와 매개변인 측정 질문에 대한 응답이 6점에서 9점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1=해롭다~9=유익하다, 1=나쁘다~9=좋다). 참여자들이 사전 정책 태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면, 내집단 규범정보 조작을 위해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가짜 결과를 제시하고 시간을 들여 읽게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

의 정책태도 조사’를 위해 능력주의 비판글(즉, 연구1과 동일한 글)에 대한 조작된 내집단 평가가 포함된 두 번째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무선 배정 조건에 따라 참여자들은 연구1에서 사용한 능력주의 비판 글과 이 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설명으로 내집단의 평가 정보를 제공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A대학교가 주관하는 토론대회 준비를 위해 실시된 온라인 조사 결과라는 명목으로 참여자들에게 대학생과 일반인의 평가정보를 제공하였다.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인의 평가정보도 함께 제공한 이유는 조사결과가 특정표본에 편중되지 않은 신뢰할만한 결과임을 지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내집단 평가 긍정’ 조건에서는 온라인 조사 결과 대학생 504명과 일반인 510명의 평가가 논설문 주장에 대해 모두 긍정적(6점 척도 응답에서 평균 5.19의 결과)이었다는 정보를 접했다. ‘내집단 평가 중간’ 조건에서는 온라인 조사 결과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에 가까운 평가 결과(6점 척도 응답에서 평균 3.40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논설문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정도와 지문의 주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뒤이어 주요 변인들에 응답하였다. 지문의 주제를 묻는 사지선다 선택지의 한 문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정보를 묻는 사지선다 선택지의 한 문항 총 두개를 조작점검으로 삼았다. 두 번째 질문지에 실린 조건에 따른 내집단평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평가-긍정

2016년 경기도교육청과 A대학교 주관 토론대회에 사용할 찬/반 의견 선별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약60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504명(남253, 여251), 일반인(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기타 등) 510명(남252, 여258)을 대상으로 총 1,014명에게 다양한 주장을 담은 지문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문에 대한 평가는 위 글의 주장이 얼마나 옳다고 여겨지는

지, 주장에 대해 호의적인지 그리고 지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위의 <불평등의 심화: 능력주의의 한계>지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대학생과 일반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평균 =5.19, ⑤ 그렇다)고 평가하였으며, 평가에 있어 남자와 여자 응답자간의 차이는 없었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

####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평가-중간

2016년 경기도교육청과 A대학교 주관 토론회에 사용할 찬/반 의견 선별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약60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504명(남253, 여251), 일반인(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기타 등) 510명(남252, 여258)을 대상으로 총 1,014명에게 다양한 주장을 담은 지문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문에 대한 평가는 위 글의 주장이 얼마나 옳다고 여겨지는지, 주장에 대해 호의적인지 그리고 지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위의 <불평등의 심화: 능력주의의 한계>지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대학생과 일반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간정도에 가깝게(평균=3.40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사이) 평가하였으며, 평가에 있어 남자와 여자 응답자간의 차이는 없었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

#### 측정 도구

##### 조작 점검

#### 기술문의 주제

참가자가 기술문 내용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질문 “위 글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사지선다 응답을 조작점검으로 삼았다(1=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실패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 2=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책임감이 부족하

다, 3=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4=인구감소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 내집단 평가

참가자들이 기술문에 대한 내집단의 평가를 바르게 지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어진 두 번째 질문 “조사결과, 위 지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는 어떠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두 번째 조작점검으로 삼았다(1=대체로 부정적인 편, 2=대체로 긍정적인 편, 3=중립에 가까운 편, 4=알 수 없음).

#### 매개변인

####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

“능력주의 라는 가치/원칙은” 이라는 질문으로 의미미분 5개 문항(1=해롭다~9=유익하다, 1=어리석다~9=현명하다, 1=나쁘다~9=좋다, 1=비판적이다~9=호의적이다, 1=탐탁지 않다~9=바람직하다)에 대한 9점 척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

“능력주의라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옳다고 자신할수 있는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2개 문항 응답(1=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을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으로 삼았다.

#### 종속 측정

연구1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속 측정은 처치 전후 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삼았다. 우선, 사전 정책태도는 실험실에 도착하자 응답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 질문지에서 ‘여성 취업우대’ 정책에 대한 응답(9점 의미미분 2개 문항)만을 사전 정책 태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책질문지 마지막 장에 ‘적극적 조치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들에게 사후 정책태도에

해당하는 “여성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조치 제도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의미미분 5개 문항(1=해롭다~9=유익하다, 1=어리석다~9=현명하다, 1=나쁘다~9=좋다, 1=비판적이다~9=호의적이다, 1=탐탁지 않다~9=바람직하다)과, 1개의 추가 문항(1=반대한다~9=찬성한다)을 포함하는 총 6개 질문에 9점척도로 응답하였다.

## 결 과

### 조작 점검

참여자들이 능력주의 비판 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접한 후, 지문의 주제를 묻는 문항과 대학생들의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한 두 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문의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 옳게 응답(1=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실패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하였다. 내집단 규범정보의 긍정성에 대한 조작점검으로 4개의 선택지(1: 부정적인 편, 2: 긍정적인 편, 3: 중립에 가까운 편, 4: 알 수 없음) 중 ‘내집단평가 긍정’조건에서는 2번을, ‘내집단평가 중간’조건에서는 3번을 선택한 응답자들만 선별하여, ‘내집단평가 중간’조건에서 틀린 응답을 표시한 참여자 2명을 제외하였다.

### 사전 정책 태도

처치전에 응답하도록 한 사전 정책태도 질문 중 ‘여성 적극적조치 정책’에 대한 2개 평가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alpha=.936$ ). ‘사전 정책태도’에 대한 응답을 종속 측정으로 2(참여자성별: 남, 여) x 2(내집단평가: 긍정, 중간)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성별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F(3,77)=33.89, p<.001$ ). 연구1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정책 태도에 있어 남자들( $M=4.34, SD=1.93$ )이 여자들

( $M=6.74, SD=1.72$ )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내집단 평가 조건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4에 적극적 조치 정책에 관한 사전, 사후 태도가 나타나 있다.

### 사후 정책 태도

두 번째 질문지에서 응답한 ‘여성을 위한 적극적조치 제도’에 대한 의미미분 응답 5개와 ‘여성 적극적조치 제도’에 찬성 혹은 반대 정도를 묻는 의미미분 응답 1개를 평균하여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alpha=.973$ ; 표 4 참조).

사전 정책 태도 응답에 있어 응답자성별의 주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정책태도 응답을 통제된 공변량(ANC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정책태도를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사후 정책태도를 종속측정으로 한 2(참여자성별: 남, 여) x 2(내집단평가: 긍정적, 중간적) 이원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 평가의 조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3,77)=7.28, p=.01$ ). 그리고 응답자 성별의 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F(3,77)=10.50, p<.01$ ).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사전정책태도를 통제했을 때, 사후 정책태도에 있어서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 평가가 중간일 때(조정된  $M=5.10, SD=.31$ )에 비해 긍정적이었을 때(조정된  $M=5.89, SD=.31$ ) 더 우호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후 정책태도에 있어서 남자들(조정된  $M=4.93, SD=.31$ )보다 여자들(조정된  $M=6.07, SD=.31$ )이 더 우호적으로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연구2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이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긍정적 내집단 평가 정보를 접할 때, 여성에 대한 적극적조치 태도가 중립적 내집단 평가를 접한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가정한 가설1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내집단평가와 응답자성별에 따른 사전 및 사후 적극적 조치 정책태도와 태도변화 평균(SD)

	조건					
	내집단평가 긍정			내집단평가 중간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사전 AA태도	4.20 (1.82)	6.84 (1.74)	5.43 (2.21)	4.50 (2.10)	6.66 (1.74)	5.69 (2.18)
사후 AA태도	4.62 (1.79)	7.13 (1.46)	5.78 (2.06)	4.10 (1.58)	6.12 (1.40)	5.21 (1.78)
태도변화	0.42 (1.66)	0.29 (1.28)	0.36 (1.48)	-0.40 (1.59)	-0.54 (1.89)	-0.48 (1.74)

주. 태도변화(사후 AA태도 - 사전 AA태도)

표 6 사전정책태도를 통제 후 내집단평가와 응답자성별에 따른 사후 적극적 조치 정책태도 조정된 평균(SD)

	조건					
	내집단평가 긍정			내집단평가 중간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조정된 (adjusted) 사후 AA태도	5.26 (0.30)	6.53 (0.32)	5.89 (0.31)	4.60 (0.32)	5.60 (0.29)	5.10 (0.31)

매개 분석

앞선 연구1에서 확인한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이 설득 효과에 매개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능

력주의에 대한 호감을 측정한 5개 응답을 평균( $\alpha=.942$ )하고,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한 2문항 응답을 평균( $\alpha=.915$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에 대해 2(참여자성별:

표 7. 연구2 주요 변인 상관표

	사전AA	사후AA	태도변화	지문동의	능력주의 호감	능력주의 자신감
사전AA	1					
사후AA	.682***	1				
태도변화	-.519***	.270*	1			
지문동의	.295**	.274*	-.068	1		
능력주의 호감	-.022	.104	.150	-.012	1	
능력주의 자신감	.050	-.009	-.076	.068	.512***	1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남, 여) x 2(내집단평가: 긍정적, 중립적)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성별의 효과 ( $F(3,77)=.488, p=.487$ ), 내집단평가의 효과 ( $F(3,77)=.037, p=.848$ ),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 $F(3,77)=.316, p=.576$ )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매개분석 결과, 능력주의 호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95% 신뢰구간 [-.30, .04]).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2(참여자성별: 남, 여) x 2(내집단평가: 긍정적, 중립적)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성별의 효과 ( $F(3,77)=1.396, p=.241$ ), 내집단평가의 효과 ( $F(3,77)=.001, p=.972$ ),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 $F(3,77)=1.780, p=.186$ )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역시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95% 신뢰구간 [-.08, .11]). 변인간 상관분석을 통해 가정한 매개변인과 정책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표 7). 이에 따라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다.

## 논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매개변인으로 확인한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호감을 내집단 규범정보를 통해 조작하여 연구1의 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능력주의 비판 글에 대한 내집단의 긍정평가 정보를 통해 사후 정책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적극적 조치에 대한 긍정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태도 저변의 가치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가치에 대한 내집단 규범 정보가 그 가치와 연관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내집단 규범 정보를 이용하여 설득 효과를 얻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태도 자체에 대한 규범 정보(즉,

내집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 태도를 지지한다 등)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2에서는 적극적 조치 반대 태도의 저변에 있는 가치에 대해 내집단이 비판하 있다는 정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연구2에서 매개변인으로 제안한, 능력주의에 대한 내집단 규범정보(즉, 부정적 평가판 등)를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내집단 규범 정보의 제공이 그 가치와 연관된 태도는 변화시켰지만 그 가치 자체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 평가를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을 조작하고자 하였지만 내집단의 평가 정보를 조작함에 있어 대학생(즉,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에 대한 정보를 같은 방향으로(긍정적 조건에서 대학생,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또한 중간적 조건에서 모두 중간으로 평가한 것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집단(즉, 대학생) 규범정보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거나 태도 변화의 근거가 모호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규범 정보가 일반인과 대학생이 대부분 능력주의 비판에 동조하거나 혹은 중립적이었다는 식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즉,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이 비판하고 있는(혹은 중립적인) 능력주의 가치와 연관된 태도의 변화(즉, 적극적 조치 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동조는 일어났지만, 이러한 조치가 강한 내집단의 영향력이 되어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2의 실험이 진행된 시기가 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시점이어서 참여자 학생들의 낮아진 실험 몰입도 때문에 연구2의 매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확

실하게 내집단 정보를 제공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능력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의 변화가 매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적극적조치 정책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설득 방법을 검토하였다. 적극적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반대의 근거를 능력주의 원칙에서 찾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면 정책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연구(연구 1, 2)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연구자의 예상대로 적극적 조치 정책에 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설득하고자 한 경우보다 정책 반대주장의 근거 원칙인 능력주의를 비판하거나(연구 1) 혹은 능력주의 비판 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집단 규범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연구 2) 사람들의 사후 정책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되었다. 이 결과는 태도를 직접 공략하게 되면 설득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설득이 성공적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설득저항을 피해갈수 있는, 태도 저변의 가치나 원칙을 공략하는 설득이 더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 분석 결과(연구 1) 이러한 태도변화의 효과는 해당 태도를 지지하는 가치나 원칙에 대한 호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2에서는 위에서 기술한대로 능력주의 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내집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가치와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연구2에서는 태도의 근거가 되는 가치에 대한 내집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연구2에서는 태도 변화의 매개변인으로

제안한 가치나 원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을 내집단 규범정보를 통해 조작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작에 따른 자신감이나 호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능력주의 비판글에 대한 내집단 규범정보가 개인의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할만큼 약했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혹은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 1의 매개 분석 결과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된 것을 미루어보아, 가치 비판의 설득 효과를 더 잘 설명해줄 다른 매개변인의 탐색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감소된 저항감 혹은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 같은 변인 등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다른 조작을 통해 본 연구의 효과를 다시 검토해볼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연구자는 실험을 설계하며 사전 사후 정책태도 측정 사이 시간간격을 두는 등 반복 측정으로 인한 요구특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여러 장치를 통해 노력했지만, 능력주의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 측정과 사후 정책태도 응답에 있어 그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험참여자들에 연구에 대한 의심이나 목적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이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특성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의 자기보고식 응답보다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IAT 등의 방법으로 가치 및 원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감 그리고 사후 정책태도 역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극적조치에 대한 사전 태도와 사후태도의 반복 측정 사이의 시간간격(약2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요구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 태도를 학기 초에 미리 측정함으로써 사후 태도 측정과 시간적으로 보다 더 멀리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선행연구가 적극적조치에 대한 찬성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설득방법을 다루었다는 점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조치 제도를 찬성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을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실용적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의 적극적조치 제도는 이미 많은 미국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시행되는 적극적조치 제도-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특히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전태도가 약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적극적 조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본 연구가 실험을 통해 검토해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용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미경(2013) 등이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적극적조치 정책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약한 강제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아직도 여성의 사회참여나 리더 지위로의 승진이나 진출이 저조한 현실을 미루어볼 때,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함의가 충분히 있다고 여긴다. 앞으로 적극적조치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예를 들어, 내집단 규범정보를 보대 세분화하여, 같은 대학생 집단, 남자대학생 집단, 선진국 대학생 집단 등으로 제시하였을 때의 효과 검토 등- 과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정인 (1991). 계급과 평등: 기회균등과 능력주

의의 문제점 및 그 한계. 한국과 국제정치, 7(1), 1-35.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김혜숙 (2014).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 서울: 집문당.

나은영 (1995).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69-83.

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류도암 (2013).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2.

안상수, 김혜숙 (2003).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7(3), 51-75.

오찬오 (2016). 가난은 무능한 내 탓?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가난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 가톨릭 평론, 1, 30-42.

윤인진, 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 조사. 경제와 사회, 58, 222-248.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Blankenship, Wegener, & Murray. (2012). Circumventing Resistance: Using Values to Indirectly Change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606-621.

Davey, Bobocel, Son Hing, & Zanna. (1999). Preference for the Merit Principle Scale: An Individual Difference Measure of Distributive Justice Preferences. *Social Justice Research*, 12(3), 223-240.

- Deutsch, M. (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37-149.
- Foster, M. D., Sloto, L., & Ruby R. (2006). Responding to discrimination as a function of meritocracy beliefs and personal experiences: Testing the model of shattered assump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 401-411.
- Hayes, A. D.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Sullivan B. N.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3-36.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893-903.
- Knowles, E. S., & Linn, J. A. (2004). *Resistance and persuasion*. Mahwah, NJ: Erlbaum.
- Lalonde, R. N., Doan, L., & Patterson, L. A. (2000). Political correctness beliefs, threatened identities, and social attitud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3, 317-336.
- Maio, G. R., & Olson, J. M. (1998). Values as truisms: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94-311.
- McGuire, W. J. (1960a). Cognitive consistency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 345-353.
- McGuire, W. J. (1960b). A syllogistic analysis of cognitive relationships.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pp.65-111).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cGuire, W. J., & Papageorgis, D. (1961). The relative efficacy of various types of prior belief-defense in producing immunity against persuas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2, 327-337.
- McGuire, W. J. (1964).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 Some contemporary approach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 pp. 191-22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doi:10.1016/S0065-2601(08)60052-0
- Schwartz, S. H., & Blisky, W. (1987). Toward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doi:10.1037/0022-3514.53.3.550
- Sherif, M., & Sherif, C. W. (1953). *Group in harmony and tension*. New York: Harper.
- Son Hing, L. S, Bobocel, D. R., & Zanna, M. P. (2002). Meritocracy and Opposition to Affirmative Action: Making Concessions in the Face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493-509.
- Son Hing, L. S, Bobocel, D. R., Zanna, M. P., Garcia, D. M., Gee, S. S., & Oraziotti, K. (2011). The merit of meritocr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3), 433-450.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1 차원고접수 : 2017. 09. 01.  
수정원고접수 : 2017.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4.

**The effects of indirect attack on the  
value underlying attitudes towards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Intervention effect of value attack**

**Jaewuk Jung**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o persuade college students to support for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for women. We hypothesized that since the persuasion attempts directly arguing against the recipients' existing attitudes often had been confronted with resistance, indirect methods to attack the values or principles on which attitudes were based might be more effective. In Study 1, we presented the participants with either a message criticizing the meritocracy value(or principle) or insisting directly for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eir attitudes towards AA both before and after reading the mess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AA policy tended to change more positively after reading the message criticizing the meritocracy value, in comparison with the participants who read the message arguing for the AA policy directly.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attack on the value of meritocracy on attitude change was mediated by the increased favorability of the meritocracy value. In Study 2, we directly manipulated the favorability of the meritocracy value by providing positive or neutral evaluative information of the ingroup (i.e., the opinion of the same University students' as the participant's) regarding the meritocracy value or principl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expected, positive ingroup norm compared to the neutral one changed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the AA policy more positive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value, attitude change, persuasion, affirmative action, meritocracy